

GS칼텍스, 현장중시 영업전략 강화

9월22일 Kixx 룸 오픈 영업현장-전략부서 연결 ... 화상회의 시스템도

GS칼텍스(대표 허동수 회장)는 9월22일 오전 9시30분 허동수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GS타워 28층에 새롭게 마련된 Kixx 룸 오픈 행사를 열었다.



새롭게 문을 연 Kixx 룸은 영업현장과 본사의 전략부서를 실시간으로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로, GS칼텍스는 영업현장의 애로점과 업계의 변화를 신속·정확히 파악해 시장상황에 적합한 영업전략과 대응책을 수립하고 다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Kixx 룸을 마련했다.

GS칼텍스는 Kixx 룸에 상주하는 직원을 배치해 매일 인터넷과 유무선 통신장비는 물론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는 각종 현장정보를 종합해 본사의 전략부서에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화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본사 직원들과 지사나 영업소 직원들이 활발한 토

론, 회의 등을 벌일 수 있도록 하며,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영업전략과 대응책 등 중요 의사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GS칼텍스 허동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유가 등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Kixx 룸은 영업현장의 변화를 신속·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종합상황실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시장상황에 적합한 영업전략과 대응책을 수립해 시장을 선도하는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화학저널 2005/09/23>